

제4강 성경의 맥잡기_창조시대

(창1-11장)

일상의 땅으로부터 우주의 만곡궤도 밖으로.....우주, 그 곳은 인간이 침범하지 못한, 그 누구도 감지하거나 탐험해 본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하여 인간은 처음으로 그 은밀한 지역을 힐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우주의 광경은 인간의 물질관과 에너지관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같이 정말 믿을 수 없는 황당무개한 세계였던 것입니다.

첫손가락 하나의 양이 코끼리 이천만 마리의 무게나 나가는 곳, 빙글빙글 도는 작은 별이 단속적으로 1초에 30번씩 반짝이는곳, 작고 신비로운 물체가 태양 10개 만큼의 밝기로 빛나는곳, 물질과 빛이 게걸스럽게 블랙홀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곳. 등등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하계가 100억개 이상 아니, 그 이상.....어마무시한 규모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간을 초당 빛의 속도, “광년”로 측정했는데, 광년은 초당 186282마일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거리입니다.(미국 지리 잡지 1976.5) 우리가 지구를 빛의 속도로 빙 둘러 오는 총알을 쏘쭈만 있다면 그것은 지구를 돌면서 우리를 1초에 7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영국 근대 과학자 홀데인(J.B.S)은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묘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묘하다 했습니다.

오늘은 위의 우주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1장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요시대 주요인물 주요지역을 복습하며 창조시대를 살펴 봅니다.

즉, 창조시대요, 아담이요, 에덴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시대는 네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창조 ②타락 ③홍수 ④바벨탑입니다.

1.창조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창1-2장)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화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아름답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성”이란 육신의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자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감성 지성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의 속성들로 인간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2.타락 :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창3장)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금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창조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인간의 고통과 악과 모든 괴로움은 인간의 타락이라 불리는 이 한가지 행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3.홍수 : 죄에 대한 심판 (창6-10장)

이후 700년 동안 인류의 수가 크게 번성함에 따라 그들의 죄악도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노아/아내/세아들/세자부)밖에 발견하실 수 밖에 없는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든 세포조직을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을 보호하듯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4.바벨탑 : 민족의 기원 (창11장)

홍수이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한 곳에 모여 자기들을 기념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회중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하십니다.

결국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었고,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족의 기원입니다.